

전통·현대 넘나드는 '춤의 향연'

박태영 안무가, 첫 개인 안무전
다음달 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0월엔 스트릿 댄서들과 콜라보



2022년 국악상설 컨소시엄으로 진행했던 번시극 '춘향 어사출두'에서 칼춤을 추는 박태영 무용수. (바오무용단 제공)

"전통예술은 옛것의 가치를 계승하는 작업이지만, 한편으로 전통을 '답습'만 하면 예술이 창조적 가치를 잃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같은 작품이라도 스토리텔링이나 감정, 기교의 변화를 시도해 '차별화'를 모색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진득하게 전통무용의 길을 걷는 이가 있다. 젊은 나이에도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목표로 삼아, 한국무용 안무가·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가 있다.

조선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현재 바오무용단 대표로 있는 박태영 씨가 그 주인공. 박 씨는 오는 7월 1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디딤과 산: 조선의 춤'이라는 주제로 첫 개인 안무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초등학생 시절 누나의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예술에 입문한 박 씨는 "한때 소리가 나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방황하기도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후 조선대 무용과에 입학하면서 판소리에서 한국무용으로 장르를 전향하게 된 것.

이후 2021년에는 종합음악극 '무릎, 누정을 노래하다'에 출연했으며 안무까지 구성했다. 탄력을 받아 ACC 창작자 쇼케이스 '판소리극 동상기', 조선수군재건 창작극 '난세의 영웅', 국립 국악원 아티스트랩 '태평한가' 등에 출연했으며 안무를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 씨는 "개인 활동도 전념해 왔지만 2021년에는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협력을 위해 '바오 무용단'을 창단했고 현재 대표로 있다"며 "문다솜, 권유현, 안혜지, 안유진 등 5명의 청년 한국무용수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창작 안무' 작업을 통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창단한 바오무용단은 '보기 좋게'의 순우리말인 '바오'에서 착안한 한국무용 단체다. 여성 무용수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평균신장이 174cm에 달해 장신 무용수들의 굵은 춤선을 볼 수 있다. '바오'라

는 팀명에 담긴 의미를 가능하게 되는 대목이다.

박 씨는 타 장르 무용수와의 협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첫 시도로는 10월 29일에는 바오무용단과 스트릿 댄서들과의 콜라보 무대 '춘향탈춤'을 기획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순수무용에서 유래하지 않은 '대중문화 기반의 춤'을 스트릿 댄스라 칭하기 때문에, 순수무용인 한국무용과 스트릿 댄스는 그 결이 다르다.

그러나 박 씨는 이들 모두 '춤'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공연을 기획했다. '합'한 댄서들과 한복을 입은 전통 춤꾼들의 조화가 기대감을 낳는다.

한편 '디딤과 산: 조선의 춤' 공연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눈길을 끈다. 한국춤을 기반으로 만든 '댄스드라마'부터 '전통무용'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은 총 세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디딤' 대목에서는 한국무용 기본기인 발디딤을 통해 한국무용 정수를 선사하는 '이매방류 한량무'를 볼 수 있다. 이어 '박병천류 진도북춤(문다솜)', '강선영류 태평무(권유현)'가 차례로 펼쳐진다. 두 번째 파트 주제는 '산'이며 박 씨의 창작 안무들로 구성된다. 판소리 창작곡에 여인의 춤사위를 곁들인 '꽃(안유진)', 인당수에 제물이 된 심청의 심경을 담은 'Black ocean(임지연)'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박 씨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는 '황성가는 길'도 무대에 오른다. 직접 녹음한 성음을 활용한 작품.

대미는 '조선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장식한다. 바오무용단이 만든 댄스 드라마 '춘향' 일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석 초대. 디아마이광주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봉 기대승 고문헌 가치 재조명

28일 광주시청서 학술대회

고봉 기대승(1527-1572)은 조선 유학의 전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유학자다. 1558년 이항과의 만남과 편지를 통한 교류는 고봉의 사상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사철논변은 조선유학사상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 논쟁으로 유명하다.

고봉 증가는 지난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1100여 점 자료를 기탁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가운데 18점은 광주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고봉 기대승 관련 고문헌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홍영기)이 오는 28일(오후 3시)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여는 '고봉 기대승 증가 자료의 심층 연구'가 그것.

이번 학술대회는 18점의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1부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조미은 박사 사회로 문숙자(서울대 법학연구소), 진나영(송의여대), 김기림(조선대), 안동교(한국학중앙연구원)가 발표를 한다. 종가에 전래돼 온 '분제기'를

비롯해 '광국원종공신록권', '도산기', '양선생문답집' 등 주요 고문헌을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가치를 조명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김희태(광주시 문화재위원)을 좌장으로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이재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정현숙(원광대), 박명희(전남대)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

홍영기 원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 2022년에는 고봉 기대승 서세(逝世) 4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고봉의 종가에서 기탁한 고문헌의 학술적, 자료적 가치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비운의 천재 화가 모딜리아니 삶과 예술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몽파르나스의 연인'

이탈리아 출신 모딜리아니는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인물을 그렸던 화가다. 흔히 그를 가리켜 비운의 천재 화가라고 부른다. 그의 그림은 가늘고 긴 목과 우수에 찬 표정이 특징이다. 하지만 당대 그의 작품은 평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전설의 화가였던 그는 안타깝게도 폐결핵 등 지병이 악화돼 35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비운의 천재 화가 모딜리아니의 삶과 예술을 다룬 영화를 감상하고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 하정웅미술관은 26일 오후 2시 '몽파르나스의 연인'의 감상과 이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눈다.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는 조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며, 이번 감상은 '2024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4회차로 기획됐다.

'몽파르나스의 연인'은 모딜리아니가 추구했던 예술과 마지막 연인이자 뮤즈인 잔느와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뛰어난 재능에도 그림이 팔리지 않아 늘 빈곤했던 화가는 아느의 소개로 여인을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진다.

김준기 관장은 "영화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활동은 파리에서 주로 했던 모딜리아니의 생애 중 마지막 해를 담은 작품"이라며 "영화 속 모딜리아니 역을 연기했던 제라르 필립은 불운한 천재와



가 삶을 정리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해설이 있는 영화'는 8월 28일 램브란트에 이어, 폴 세잔, 파블로 피카소 등 주인공을 다룬 영화들을 만날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 선착순 방문제 운영.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소월의 서정 음악이 되다

국립남도국악원, 29일 '가락 프로젝트 네 번째 시리즈, Re: 소월'



예인집단 아라한이 지난해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Re:소월' 공연을 펼치는 장면. (아라한 제공)

김소월은 1920-30년대 우리나라 시단을 대표하는 시인 중 하나다. '진달래꽃', '집동새' 등 서정의 극치를 담은 역작을 남겨 한국 서정시사에 족적을 남겼다.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이 김소월 시인의 서정성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공연을 마련했다. 오는 29일 오후 3시 국악원 전악당에서 예인집단 아라한이 펼치는 '가락 프로젝트 네 번째 시리즈, Re: 소월'이 그것.

최고의 이상상(理想像)이라는 뜻의 '아라한'은 풍물, 무속, 기예, 탈춤 등 전통연희를 펼치는 전문 예술단체다. 전통예술의 동시대성과 미디어아트 기술 등에 천착해 왔다.

공연은 '살풀이'와 '귀곡성'을 모티브로 창작한 곡 '초혼'으로 막을 연다. 고별의식인 '초혼'은 속세에 떠도는 망자들을 안정시키는 의미를 담는다. 이어 낮을 모시는 절치인 범패, 승무, 수제천 전통

을 모티브로 창작한 '마주'가 울려 퍼진다.

허무적 인생관으로 대변되는 김소월의 삶과 감정을 투사한 '하얀달', 경기무악 도살풀이와 칠성굿 등을 차용한 '설움의 땅'도 관객들을 만난다. 소월의 시를 경기민요와 정가 창법으로 표현하는 '비난수하는 맘', 상여소리를 형상화한 '꿈길' 등도 들을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쓰임새가 적었던 이북지역 장단에 공간감을 주는 '엠비언스 사운드', 두 개로 나뉘는 '스플릿 스크린' 등 기술을 접목했다는 특징이 있다.

아라한 관계자는 "근원적 존재에 대한 허무의식 등이 투영된 작품이 마음을 매료시켰다"며 "전통 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번 공연이 인간의 내면을 마주하고 '시'의 가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무료 관람. 국악원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